

-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통권 제 173호

발행일 : 2006년 5월 21일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주중 교회 내 주차란 심각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교회가 분주하다. 성도들의 다양한 모임은 교회를 활기 있게 만든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주차문제이다. 교회안에는 160여대의 주차공간이 있다.(지하주차장 및 장애인주차구획 포함) 평일 본관 서쪽주차장은 학교우선 주차구역으로 정신학원의 교직원들이 주차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용하는 성도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70-80여대 뿐이다. 이

▶넓은 주차장? 주중 교회에서는 양육클래스와 PTP, 각종 부서 및 선교회 등 다양한 집회와 모임이 있다. 이로 인해 화·수·목·금·토요일 오전에는

역시 적은 주차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는 다수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주차란이 발생하고 있다. (3면에서 계속)

2006년 임직자 수련회 3면

유아세례일정 4면

30CUP 예배 / 수련회 3/4면

구역모임 5-7, 5-11 2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임직자수련회 30CUP예배		교역자수련회				
무지개축제 사진전 28	29	30	지방자치제 선거일 31			

가정사역팀 행가람* 첫 번째 큰모임

“부부가 더욱 사랑하며 섬겨야 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29일(토) 가정사역팀 주최로 제1회 행가람 큰모임이 경기도 광주 사랑의 집에서 열렸다.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기획된 이 모임에서는 모두 26쌍의 부부가 참가했다. 사립의 시간에는 김경신 장로의 댄스 코칭을 받아가면서 굳어 있던 몸을 풀고 마음을 열었다. 저녁을

먹은 후 조선연, 장운경 집사 부부의 간증을 들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부가 더욱 사랑하며 섬겨야 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구촌 가정사역원 원장인 이희범 목사의 강의 <행복한 부부 원리>에 참여했다.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사역의 목표는, 예수 믿는 가정들이 건강, 행복해져서 예수님을 믿지않는 사람들의 가정을 예수님게로 인도하는 것에까지 두어야 한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 지는 것이며, 그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잘 섬기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2면에서 계속)

영화상영, 아이스에이지 I

30CUP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가 상영된다



엄마 아빠는
대배설로 오세요

선교보고-이성민선교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는 주님의교회 캄보디아 파송선교사인 이성민선교사의 선교보고가 있었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모인 보고회는 먼저 찬양으로 시작됐다. 뒤이어 선교

사역본부장인 한운경 장로의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어졌다. 부인 김창숙 선교사와 아들과 함께 참석한 이성민선교사는 요한계시록 3장 7-8절, 11-12절을 봉독하고 선교보고를 계속했다. (3면에서 계속)

4부예배, 오늘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대합니다.

- ‘예수 사랑하심’ _ 오늘연주팀
- “여자로 살아가기”(토론) _ 사회: 박근형
출연: 김경신 이동희 손영곤 엄승용 한근혜
- “여자, 그 파란만장한 이름”(잠 31:29~30) _ 이호 목사
- “서론” _ 장근희

Misson 함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주님 뜻 좇아 살겠습니다.”
(×)



흔히 ‘좇아’와 ‘좹아’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좇다’는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좹다’는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거나 남의 말, 또는 뜻을 따를 때 쓰인다. 쉽게 쓰는 속담 중에 ‘닭 좇던 개’를 생각하면 구분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좹다’를 활용한 문학작품에서의 예로는 “태초부터 사람은 살기 편한 것을 좇게 마련이오.”란 말이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쓰인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고 있는 ‘행복을 좇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주님의교회 가족들은 모두 ‘행복을 좹는 사람들’이 되자!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하프타임 강좌 “내과 질환의 예방”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지식과 예방법



김재중 박사

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흔히 선진국병이라고 불려온 순환기 질환은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다. 우리나라에도 순환기 질환은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재중 박사는 건강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잘못된 상식과 오해 또는 인내하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병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법을 제시했다.

동맥경화는 혈관 내에 플라그가 두꺼워지며 피의 흐름을 저해하므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과 급사를 유발하며, 신장과 말초신경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고혈압도 특별한 증상은 없으나 무언의 살인자(Silent Killer)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질환이다. 유전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이

지난 16일 하프타임 강좌에서는 아산병원 심장내과의 김재중 집사의 강의가 있었다. 하프타임어들에게 필수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에

반반인 고혈압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하고 특히 한국인에게 심한 염분섭취의 감소와 운동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고지혈증 역시 체중관리를 잘하며 주원인인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육류기름의 섭취를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 예방해야 한다.

당뇨는 에너지 과다로 생기는 병으로 다식, 체중감소나 피로가 심할 때는 즉시 확인해야 하며 증상이 있을 때는 열량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적정량의 섬유질을 섭취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다.

2시간이 넘는 열강과 계속되는 질문으로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강의였음을 확인케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희망의 프락’,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

영아부	7월 9일	교 회
유어부	7월 22-23일	교 회
유치부	7월 29-30일	교 회
썩트네	8월 19-20일	교 회
유년부	7월 23-25일	안성엄마농장
초등부	7월 24-26일	양평관광농원
소년부	7월 21-23일	양평관광농원
레인보우	8월 13-15일	안성엄마농장
중등1부	8월 3-5일	호렙 오대산 수련원
중등2부	8월 10-12일	호렙 오대산 수련원
고등부	7월 31일-8월 2일	호렙 오대산 수련원

(1면에 이어서)

가정사역팀 행가람 첫 번째 큰모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가정이야말로 사람이 만나는 최초의 학

교이므로 부모도 지식과 기술이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교회인 가정에서도 역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2부 순서에서는 4가정의 부부가 구체적으로 나의 배우자의 장점 열 가지와 단점 한 가지에 대하여 발표하고 진단/적용/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워크숍을 통해 부부가 실제의 상황으로 돌아가 연습/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늦은 밤 12시여가 되어서 전체모임을 마칠 수 있었다.

| 번식구역 연합구역모임 |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 뿐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2006년 5월 10일 5-11구역과 5-7구역은 구역연합예배를 엄혜숙집사(5-7 섬기미)의 집에서 가졌다. 이 두 구역은 원래 한 구역이었는데 얼마전, 2개의 구역으로 번식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매주 만나던 얼굴들을 자주 못 보는 아쉬움에 가끔씩 연합으로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첫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11구역 섬기미 박경숙 집사의 반주에 맞추어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구역 모임을 시작했다. 찬양 후 시편 23편을 이용한 자신의 신앙고백을 나누

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지 돌이켜 보고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 뿐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구역식구들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과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현재 이 두 구역은 2006년 1학기 구역교재로 택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7과를 마치고, 두 번째 교재로 "영적전쟁"을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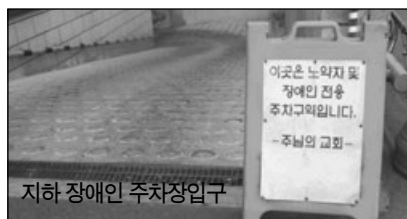
장애인 주차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마리아회관 정문 입구 쪽에 있었던 지상 장애인 주차 공간이 본관 운동장 쪽 중앙 출입문 쪽으로 옮겨졌다. 이번 공사는 주차공간으로부터 엘리베이터까지의 휠체어의 이동거리를 줄이고 주차구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파손된 다수의 주차정지턱도 보수하였다.

교회안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지하주차장 15구획과 지상 5구획이 전부이다. 그러나 간혹 장애인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일반주차차량으로 인해 주일에 배에 참석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량안내부에서는 비장애인 성도들의 의식 있는 배려를 부탁했다.



새롭게 단장한 장애인 주차구획



지하 장애인 주차장입구

무지개축제 소감문

“주님의 형상을 맘껏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길가에교회 창립일(2005년 12월 11일) 이후 주님의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없어 내심 “무지개 축제”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실상 “축제”보다는 먼저 반가운 얼굴을 만나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어언 5개월 만에 주님의교회에 와보니 모든 것이 새로웠다. 감격스러운 파송식을 가졌던 대예배실도... 사역팀원들의 분주한 봉사의 손길들도... 이 모든 것이 친근하게 한 눈에 들어왔다. 날씨도 정말 좋았다. 작년 뜨거웠던 태양을 피했던 생각을 하면 운동장 위에 짝 끼어있는 구름도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시작을 알리는 축포소리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아마 주님께서 모두 다 주인공으로 참여하라고 큰 소리로 권면하시는 것 같았다. 목사님들의 꼭지점 땀~스... 복음을 들고 동서남북 어디든 헌신하겠다는 몸 찬양처럼 보였다. 각종 놀이기구와 먹거리, 단

체경기... 순간마다 만나는 친근하고 포근한 얼굴들과 인사하며 악수하고 포옹하고 축복했다. 각 구역마다 형형색색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나누니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찬양의 시간에 진행팀은 도민인 우리들에게 앞서 리를 배려해주었다. 길가에교회 성도들은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형제, 자매에 모습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맘껏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드디어 길가에교회 순서가 왔다. 그 동안 갖고 닦은 율동을 발표 시간이 된 것이다. 연습할 때는 제법 되던 율동이 큰 무



대에 서니까 왜 그리 딱딱 해지는지 실수 투성이였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나라를 위해 보내시며 사용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몸으로 표현하는데는 충분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금년도 무지개축제는 끝이 났다. 그러나 축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없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축제에 초대하고 계시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찬송이 절로 나왔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길가에교회 김용훈집사

(1면에 이어서)

주중 교회 내 주차란 심각

“자가용 사용을 자제해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이중 일렬주차로 좁아진 통로

스들이 교회 앞을 지나간다. 과천과 안양 등지에서 오는 시외버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교회 동쪽 주차공간이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70여대인 것에 비해 목요일 이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160여대(서쪽 주차장 양쪽 일렬주차 포함)가 넘는다.

▶**장애인주차장**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성도들은 장

▶**넘치는 자동차** 정신여자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의 요지에 있다. 지하철 2호선(종합운동장역)과 밀접해 있으며 테헤란로로 이어지는 많은 버

에인주차구획에 주차하기도 하고 이중으로 일렬주차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곳을 지나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교회 북쪽 통로의 좁은 공간에 불법주차를 해서 이곳을 통로로 지나가야 하는 다른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해야 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자동차요일제** 자동차 요일제를 통해 각종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때에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 쉬어야 하는 날의 요일제 스티커를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붙이고 성경공부를 하러 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이 용만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 곳에 사는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혹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이야 당연히 승용차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수고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주중 교회의 주차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일제를 어기고 교회마당에 주차한 차량



정신학원 북측 벽면과 접해있는 지하철/버스정류장

오늘 4시 30CUP 예배

소년 다윗의 용기와 선지자 나단의 지혜, 깊이 생각

오늘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30CUP 예배가 드려진다.

사무엘상17장, 사무엘하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감, 소년 다윗과 선지자 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번 예배는 30CUP 찬양팀과 김현령목사가 찬양과 설교를 맡는다. 김목사는 신앙 생활에 꼭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다윗과 나단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여 도전하게 된다. 변함없이 찬양예배로 드려지는 이번 예배에는 이중익/장근희의 특별찬양 순서도 준비되어 있다.

30CUP 예배실황 DVD 판매

“수익금은 전액은 ‘바베트의 만찬’ *에 사용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30CUP 1주년 감사예배(2006년 4월 16일)실황 DVD가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CCM아티스트 장운영콘서트, 김현령목사의 설교, 문동학목사의 성찬식 집례의 과정이 실시간에 가깝게 자세히 편집되었다. DVD는 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바베트의 만찬에 사용된다고 한다.

*바베트의 만찬은 30CUP의 자체구제운동으로 올해는 어린이 청소년 위탁보호시설인 ‘나무를 심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임직자 일일수련회

오늘 오후 2-5시 3층 초등부실

장로피택 : 김양자 한득현

권사피택 : 고유자 김운선 백숙자 송경혜 은영희 이봉순 정영숙 최정운

안수집사 : 김학원 동현수 박중순 심동욱 윤의탁 이원철

피택 최성준 외 당회원

(1면에 이어서)

선교보고-이성민선교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의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라는

열린 문을 주셨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전했다.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간단한 다과와 환담으로 끝을 맺었다.

30CUP 1차 여름 수련회

“가족과의 관계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위해”



세계교회 협력센터

주님의교회 30대 사역팀에서는 6월 17-18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에 초대되는 12가정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들로 생계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소홀히 했던 가족과의 관계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17일(토)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관계훈련, 대화, 쉼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된다. 18일(주일)은 남양주에 있는 길가예교회로 이동, 2부 예배에 참석하고 길가예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식식사를 하게 된다.

식사 후 30CUP이 주관하는 찬양예배를 드리게 된다.

길가예교회는 이 날 믿지 않는 이웃을 초대하여 30CUP과 함께 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그곳에서 예배를 마친 참여자들은 주님의교회에 도착, 4시에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30CUP 예배에 한 번 더 참여하여, 수련회를 마무리 하게 된다. 30CUP 사역팀은 이외에도 30대 미혼자들을 위한 수련회(7월 중)와 신혼부부를 위한 수련회(가을), 산모들을 위한 1일 수련회(가을)도 계획하고 있다.



숙소내부

5월 정기당회

20년사 편찬, 선거법확정, 전자개표 결정

2006년 5월 13일 오전 6시 4층 대회의실에서 5월 정기당회가 열렸다. 담임목사와 20명의 당회원이 참석한 이번 당회에서는 재정보고, 사역본부별보고 그리고 안전토의가 있었다. 목양사

역본부는 주님의교회 20년사 편찬을 제안했고 토론을 거쳐 2008년 6월말 창립 20주년에 즈음하여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2006년 항존직 임직을 위한 선거관리 세칙 안을 확정짓고, 처음으로 전자개표를 실행하기로 했다. 오전 7시 50분 문동학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최고의 무용 영국 캔두코 무용단, 내한공연

한국현대무용협회가 주관하는 Modafe는 지난 1982년 처음 시작된 이래 세계 예술시장의 원류를 담은 최신 해외작품을 공연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 현대무용축제이다. 2006년에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진한 인간애와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작품을 공연하게 되었다. 오는 5월 26일(금), 27일(토) 저녁 8시에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품을 만드는 감동적인



예술을 추구하고 있다. 1991년 창단 이후 꾸준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치료 활동을 펼쳐 왔으며,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 예술 활동의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무용계 뿐 아니라 영국 사회전체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캔두코 무용단은 영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바쁜 공연일정을 보내고 있다. 연평균 1만6천명 관객을 모았으며, 타임아웃공연대상(1992), 세인트버리예술상 교육부문 대상(1993), 푸르덴셜예술상(1997), 타임아웃 안무가상(2003) 등을 수상했다. 티켓구입문의는 www.modafe.org나 765-5352(모다페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임아웃 안무가상(2003) 등을 수상했다. 티켓구입문의는 www.modafe.org나 765-5352(모다페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오늘 기도



2006.5.21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

유아세례를 위한 부모교육일정

기간: 6월 4일(주일)~25일(주일)

매주 오후 1:30~3:30

대상: 만 2세 미만의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는 부모.
단, 부모 중 한 분 이상은 세례를 받고 부부가 모두 교육에 참여해

야 함.

장소: 3층 초등부실

신청: 1층 로비에서 유아세례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담당자에게 제출
문의: 정재훈집사 (011-289-2111)

세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의 시작!

복있으라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된 여러분이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못 입었느니라 (골 3:27)

“ 함께 축하합니다 ”

◆ 5월 20일(토) 오후 2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윤보

혜양(2-28구역 윤봉신, 오은순 집사 자녀)과 김재영군의 결혼식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부부는 서



함 들 함 을

교회의 안팎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 교우들에게 전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확립해가는 본지의 목표를 수행할 기사를 모

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주님의교회 등록교인입니다.

기자지원 및 신문기사 문의
hamnews2006@naver.com